

2010년 전국 16개 도시 문화행사 분석 '문예연감' 통계보니

공연에 목마른 '예향 광주'

클래식 꼴찌에서 세번째... 낙제수준

광주 미술·전남 국악 5위 '체면치레'

지난 2010년 한햇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가 2010년 한햇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했던 문화행사(공연·전시)를 분석한 '2011 문예연감' 통계에 따르면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전남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광주는 미술을 제외하고는 클래식(양악), 국악, 무용, 연극 등 4개 장르 모두 전체 공연 횟수, 인구 10만명당 공연 횟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고, 전남은 국악을 제외하고는 언급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전남 모든 공연장르 최하위권 예상했던 대로 광주의 경우 가장 열악한 부문은 클래식으로 나타났다.

불만한 클래식 공연이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클래식팬의 불만 사항이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협연자, 정음성음악제 초청 음악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프라노 조수미 정도가 광주에서 즐길 수 있는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 공연이다.

2010년 전국 클래식 공연 횟수는 모두 7219회. 이중 광주는 103회로 충북(37회)·충남(102회)에 이어 하위권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2008년 209건, 2009년 191건으로 해마다 공연 건수가 줄어 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 광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울산의 경우 각각 233회와 203회로 7위와 9위를 차지했으며 전남(144회)은 12위에 그쳤다.

인구 10만명당 공연 횟수 역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10만명당 공연 횟수는 광주가 7.1회로 13위, 전남은 8.3회로 10위였다. 눈에 띄는 건 제주도의 약진이다. 제주 '제주국제관악제' 같은 큰 규모 축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30.7회)에 이어 무려 2위(26.1회)를 차지했다.

연극이 받아든 성적표도 낙제점이다. 다만 공연 건수에서는 저조하지만, 횟수에서는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 보다는 한 작품을 장기 상연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극 전체 공연횟수는 6만978회. 이중 광주는 276회로 16개 시도 중 13위, 공연 건수는 32건으로 15위였다. 특히 공연 건수는 지난 2009년의 63회에 비해 32건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만명당 공연 횟수는 19회로 10위를 차지했다.

수차례 전국무용제에서 대령상을 수상하며 '무향'임을 알리고 있지만 의외로 무용 부문 역시 하위권을 머물렀다. 광주의 경우 공연건수는 16건, 27회로 2009년의 30회, 27회에 비해 건수와 횟수 모두 하락했으며 전국 순위는 13위와 9위에 머물렀다.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46회로 9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26회로 광주의 뒤를 이었다.

▲비슷한 규모 울산·대전에 한참 뒤처져 지역 문화계의 낯을 세운 장르는 광주의 미술과 전남의 국악이었다.

미술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전시 총 1만3005건 가운데 광주는 539(4.76%)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02%에서 큰폭으로 상

승한 수치로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중 개인전 건수는 모두 199(3.13%)건이었다. 전남은 전체 전시 건수는 89건, 개인전은 38건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관소리의 고장임을 자임하는 전남은 국악 분야에서 다소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전체 공연 횟수 3456회 가운데 전남은 139회로 서울·부산·전북·경기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26회로 12위였다. 인구 10만명당 공연횟수에서는 11.8회로 서울(21.3회), 전북(11.8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1.8회로 12위에 머물렀다. 전남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연횟수가 83회에서 139회로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광주는 2009년 59회에서 2010년에는 26회로 크게 뒷걸음질쳤다.

▲서울 집중 갈수록 심화 큰 그림으로 보자면 문화 행사의 서울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연극의 경우 총 공연 횟수의 80.5%가 서울에서 진행됐고 이는 2009년의 67.7%에 비해 크게 늘어난 횟수다. 국악도 마찬가지다. 서울 공연 비율이 62%로 2008년의 43%, 2009년의 57%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일부 통계에서는 오류도 보인다. 국악의 경우 1년에 30회 넘게 공연을 진행하는 빛고을 국악전수관의 공연 수치가 누락됐으며 연극도 일부 소극장 작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통계를 취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오류는 광주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 의미가 없다.

'문예연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책자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통계자료이자 사료집'으로 작용한다. 광주문화재단 등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목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행하는 '문예연감'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공연 횟수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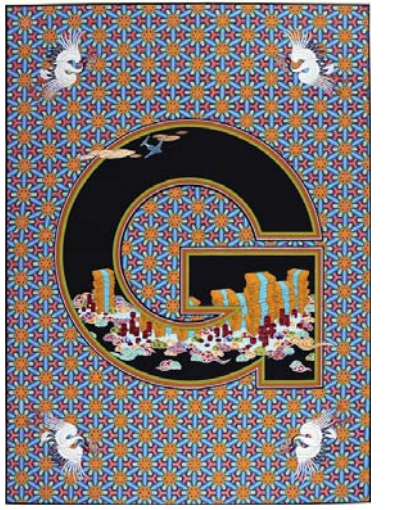
회화·조각·영상...전시의 모든것

시립미술관 내일부터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26일~2012년 1월 29일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을 연다.

시립미술관에 2200여점의 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선생의 '베네치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류현욱(대구)·서희화(군산)·신창운·신호윤(광주)·이광기(부산)·이후창(서울)·전범주(대전)씨 등이 참여해 회화, 조각, 영상 등 6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류현욱씨는 서로 다른 레이어들을 교차시켜 입체감을 준 에어 페인팅(air painting) 작품을 전시하고, 서희화씨는 버려진 플라스틱 쪼가리, 인형 등을 조립해 만든 조각을 선보인다. 또 신호윤씨는 종이로 잘라 만든 거대한 꽃과 부처형상 작품을 전시하고, 이후창씨는 유리를 소재로 한 독특한 작품을 출품했다. 이 밖에 세계적인 현악기 제작 명인인 재일교도 진창현 옹이 만든 바이올린, 비올라,



신창운 '내명에서'

체로 등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62-613-714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만의 고니...그 아름다운 찰나

전남일보 김양배·강진군청 김종식씨

내달 14일까지 강진아트홀서 사진전



강진만의 아름다운 풍경과 철새들이 카메라 영글에 담겼다.

전남일보 김양배 사진부장과 강진군청 홍보팀 김종식씨가 25일~12월 14일까지 강진아트홀 전시실에서 '강진만과 고니'전을 연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강진만 일대의 생태계와 고니의 모습을 집중 촬영했다.

겨울 안개 자욱한 섬을 배경으로 노니는 고니의 자유로운 몸짓과 풍부한 자원을 키우고 있는 갯벌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다.

또 갯벌보다 더욱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 문의 061-430-5761. /오광록기자 kroh@

파티 즐기고 예술 나누고 꿈나무 키우고

70여 작가 참여 'V-Party'전

내달 2일~7일 광주 갤러리D

광주 갤러리 D는 오는 파티와 공연, 미술품 경매가 어우러진 이색 전시회인 'V-Party'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호·김성수·김윤주·박성완·백상욱·백지훈·엄기훈·윤종호·윤준영·이다에·이세현·이인성·이조호·이혜리·장원석·정승우·조강수·조민영·주대희·최미연·최요안·홍원철씨 등 작가 70명이 참여한다.

광주 지역의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아트 프로젝트 그룹 V'가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작가와 관람객이 파트를 즐기며 예술을 나누는 이색 프로그램



지난해 열린 'V-Party' 경매 모습.

으로 펼쳐졌다. 파티 댄스와, 래퍼·밴드공연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경매, DJ그룹의 퍼포먼스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진다. 또 경매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 일부는 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미술용품으로 기부된다. 한편 '아트 프로젝트 그룹 V'는 동시대 초청전시와 강진청차예술축제, 파천 국립현대 어린이미술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오찬정식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틀케익 증정)

예약 및 문의 : 062)228-4711~2 대표전화 :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